

교 당 소 식

◎ 단 모임을 안내합니다.

2단 기획처(4월 3일 화), 3단 교무처(4월 6일 금)를 초대합니다.

- 정해진 날짜 점심(12:00)식사를 제공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심 공양은 교직원 식당에서 이루어지며, 차는 공양 후 교당 마음섬 카페 또는 귀빈실에서 응접합니다.

- 부서 과장, 담당관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하여 모임 하루 전 12시까지 교당(850-5584)

/ 박덕연 교무(010-4549-0710)에게 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실 때에는 부서 조직도를 함께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선 번호 기재)

◎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우체통 제막식

특성화사업단과 함께하는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우체통 제막식을 진행합니다.

교직원선생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4월 11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학생지원관 앞

◎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안내

매주 (화)~(금) 오전 8시 20분부터 대학선방(승산기념관2층)에서 2018학년도 1학기 기도를 진행합니다.

교직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대중경‘요훈품’1-45장(p315-323) 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3월 26일 이후)

박광수, 박맹수, 박서경, 이순영, 이영숙, 이호섭, 진찬용, 한연옥

합계 : 45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당계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종인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44호

원기 103년 4월 2일 첫째주



- 법률은(法律恩) -

1.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齊家)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법,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2. 법률 피은의 조목

-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밝게 하여 주심이요,
- 2)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 3)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내 마음에 어른이 있나?

법률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

어릴 때, 몸이 상할 해로운 것을 만지려하면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놈.” 그랬지요. 그럼 아이는 멈춥니다.

조금 더 커서 나쁜 짓을 할라치면 소리 높여 “네 이놈” 그랬지요.

글을 모르고 법이란 것도 모르는 철이 없을 때 알려주는 법이 그랬습니다.

버릇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네 눈에는 어른도 없느냐?”

자라면서 법이란 나를 통제하고 구속스러운 것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성장하여 성현들의 가르침으로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배우면서 그것이 법,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성현의 말씀을 모은 게 경전입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준한 ‘법’이란 마음에 어른과 같은 존재입니다.

법률이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나를 구속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 때 그렇겠지요. 법률은 금지하는 조건 뿐 아니라 권장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원불교에도 마음공부 정도에 따라 30계문을 줍니다. 계율은 성인의 자비심이라 합니다. 중생이 죄업을 짓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대중사를 만나 뵈고 “종교마다 계율(戒律)을 말하나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목회)하는데 많은 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자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신성하게 느끼면서도 계율을 꺼리어 신자 되기에 주저하는 수도 많으니 계율이 없었으면 그들도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그 주장은 천만인 중 한 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그들을 위해 천만인을 등한시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혼자 생활한다면 제 맘대로 해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계율이 아니라도 법망(法網)이 있고 일반 사회가 다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한다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사람이 세상에 나서는 일동일정을 엮은 얼음 밟는 것 같이 조심하여야 인도에 탈선했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종교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대종경 교의품 25장>

법 회 식 순

사회 : 박성태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례자
개 회		사회자
불전헌배◎	 사회자 안내로	다함께
입 정		다함께
월 초 기 도	 영주/기원문/묵상심고/독경	주례자
법 어 봉 독	 법률보은의 조목	다함께
일상수행의 요법	 (전서 54쪽)	다함께
설 교	 “내 마음에 어른이 있나?”	보산 나상호 교감
다 짐 심 고		다함께
성 가	 59장『이 우주에 법 없으면』	다함께
공 고		사회자
주간학사일정공고		기획처장
폐 회		사회자

법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